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위기대응에 대한 문화지향적 상담

김 승 연[†]
서강대학교

이 영 희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위기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생애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 위기 의미, 위기 대응과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문화지향적 상담 관점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상담의 적용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삶에서 어떤 위기경험을 하며, 그것은 아동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자신이 지각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위기대응 전략을 사용하며, 왜 그것을 사용하는가? (3) 본 연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주는 시사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연구의 내용을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다른 아동과는 구분되는 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위기를 경험하는데, 위기경험에 대해 아동은 ‘남과 달라서 고통스럽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물질적 조작, 상징적 조작, 자기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연구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상담하기 위해 상담자가 상담의 준비 단계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위기와 위기대응 동기, 위기대응 전략 등을 인식하여 문화지향적 상담을 준비해야 함을 논하였다. 또한 상담을 통해 아동이 ‘소외에서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위기, 위기대응 전략, 생애사연구, 문화지향적 상담

김승연은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고, 이영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김 승 연,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전화 : 019-359-8241 E-mail : pcyouth@hanmail.net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도시화와 파행적인 산업화의 구조 속에서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처해있다.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의 저소득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심리, 문화적 요소, 가족구조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대표적인 문제로 육아문제, 사회적 낙인과 빈곤학습, 낮은 성취동기, 정신건강문제, 높은 가족의 구조적 해체를 등을 꼽고 있으며(김해영, 1994; 오선영, 1993; 이은주, 1995; Schliebner & Perego, 1994), 빈곤의 경험이 어른보다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아동에게 보다 부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Ramey & Ramey, 1990). 특히 저소득층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아동은 외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의 문제와 역할혼란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부모의 역할을 한부모가 맡아서 하는 부담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신영, 1999; 허인영, 1999; Langner, 1970). 결국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저소득이 야기하는 경제적 궁핍, 가족관계 문제, 심리적 문제와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면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장애로 인하여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¹⁾ ‘저소득층’ 판별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

이 없이 여러 목적과 학문적·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는데,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범위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등으로 나타나는 법적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실제 공적부조사업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대적 빈곤에 속하는 일반 저소득층을 모두 포함한다.

발달심리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야기하는 개인 혹은 환경적 특성을 위기요인으로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용돈부족, 학습부진, 소극적인 대인관계, 외로움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높은 위기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위기요인의 위험성은 어느 특정 위기요인의 존재여부보다는 여러가지 위기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위험성이 커진다(Rutter, 1983).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심리적 장애가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Hwakins et al, 1992; Jessor, 1993; Perry & Jessor, 1985; 정현희, 1997: 112).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구가 시급함을 알려준다.

현재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형태는 급식사업 등의 경제적 지원과 공부방 운영 등의 방과후보호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다중의 위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을 돕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아동이 삶에서의 상실감,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루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자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개입이 필요하다.

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한부모가정’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하였다.

1) 기준에 주로 사용하던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는 ‘체위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 자체에서 이미 결손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가치편향적인 뜻을 내

이런 맥락에서 지금 미비하게나마 시작되는 공부방 중심의 상담활동, 사회복지관에서 아동 상담가의 활동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담은 중상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컸기에 이들의 위기를 상담에서 어떻게 ·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위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아동이 삶에서 경험하는 위기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기 보다는 빈곤 연구, 저소득층 모자가정 연구, 아동발달연구 등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비록 선행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아동의 위기를 다룬 연구들이었지만, 이 연구들을 검토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보기로 하겠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의 경향으로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의 실태조사와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자활대책, 탁아문제 지원 등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권순원, 1994; 권양자, 2000; 노인철, 1995; 박신영, 1999; 박영란, 1998; 오선영, 1993). 다음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보이는 부적응, 문제행동,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기효율성, 대인관계기술, 가족갈등, 편부모의 양육태도, 주거 및 지역사회의 심리사회적 유해환경 등을 한부모가정 아동이 갖는 특성으로 다루고 있다(김해영, 1994; 박원희, 1987; 백정재, 1996; 이경림, 1997; 이승복, 1998; 이은주, 1995; 이효숙, 1998).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아동발달분야에서 저소득층 아동이나 한부모가정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아동의 기질, 스트레스

사건, 사회적 지지, 가정의 심리적 환경 등 한 두 가지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석말숙, 1988; 오현미, 1999; 유성경, 1999; 최진희, 2000).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미치는 요인을 밝혀주고 복지정책 결정과 대책마련에 도움을 주었으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어떻게 소거할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질문지나 문체체크리스트 같은 지극히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된 계량적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다적인 요인으로 둘러싸여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위기 경험과 삶을 이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심리적 위축에 초점을 두어 위기를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선적인 위험요소로만 보았을 뿐, 아동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이 보이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기는 심각한 발달상의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해결하는 지는 아동의 미래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므로 위기연구에서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위기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수준에서 그치기 쉽다.

둘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아동의 문제유발'이라는 단정적인 원인-결과적 인과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요소환원론으로 귀착되고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실제로 많은 위기요소, 위기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위기요인이 아동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반복되는 연구물들은 마치 그런 환경의 아동 모두가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되며, 연구에서 제시되는 원인-결과만을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 위기에 나름대로 맞서서 노력하는 과정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위기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발달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보호요인) 간과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게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삶에 내재된 '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화에 반대되는 사례들은 다루어지지 못했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문화는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를 대변한다. 특히 빈곤문화는 유난히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전수되어 빈곤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심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Lewis, 1961; 1988).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보이는 특성 역시 빈곤문화의 가치, 신념, 사고체계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연구에서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개인은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그가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내부자적인 관점에서의 의미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러 사회복지정책과 교

육현장에서 소외되어있고 지금까지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위기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상담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위기경험과 위기대응전략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 연구는 문화지향적 상담(culture-oriented counseling)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문화지향적 상담은 상담자가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비교문화적 의식을 지님으로써 서로간의 문화적 거리를 최소화시키면서 상담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영희, 1982).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문화지향적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담심리학자들에 의해 인종, 지역, 소수민족 문화차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상담방법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인종적인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것 외에 지역·계층간의 문화차가 대두될 수 있다(이영희, 1975a).

문화지향적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가 다를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상담과정, 신뢰형성, 대화과정, 기존이론 적용 등이 어렵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Havernaar, 1990; Sue, Ivey, & Pederson, 1996; Sue & Sue, 1990). 상담자와 내담자의 다른 문화적 배경은 내담자의 문제귀인 양식,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상호작용에 대한 내담자의 평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하류층 내담자의 경우 중상층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상담자와의 문화적 괴리감이 높았다(신혜경, 1991). Sue(1990)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대로 상담에 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문화지향적 상담에 대한 선

행연구를 통해 볼 때 효과적인 상담, 윤리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속한 집단의 가치관, 효율적인 조력방법 등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영희(1982)는 문화지향적 상담에로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우리 문화권 내에서는 더 세분화될 수 있는 하위문화권(subculture)들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도시 안에서 주거지역,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하위문화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하위 문화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문화지향적인 상담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내담자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겪는 위기, 위기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문화를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에 대한 이미지와 결별하고 아동을 '주도성을 갖고 자신의 생활세계를 이끌어 가는 의도적인 행동주체이자 어떤 형태로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삶에서 어떤 위기경험을 하며, 그것은 아동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통계 처리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대상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규명하거나 현상의 구조를 개괄적으로 보여 줄 수는 있으나, 연구대상과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맥락적인 이해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아동으로 살아온 남학생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가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아동으로 어떠한 위기를 경험했으며, 그 경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자신이 지각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위기대응 전략을 사용하며, 왜 그것을 사용하는가?

인간의 행동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문화와 인성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환경 맥락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속한 문화, 환경, 개인적 특성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자기가 지각한 위기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위기대응 전략을 사용하는지, 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지를 탐색하면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드러내고 아동이 그 위기대응전략을 사용하게끔 영향을 준 무의식적 수준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²⁾

셋째, 본 연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주는 시사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연구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위기와 위기대응전략 등을 밝혀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문화지향적 상담을 모색하려는 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 내부자적 관점에서 아동이 삶에서 경험하는 위기, 위기의 의미, 위기 대응전략 등을 이해하고 밝혀

2) 조용환(1999b)은 문화기술적 연구의 구술성과 역사성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현재형의 질문인 "왜?"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집단 특유의 삶의 조건(즉, 생태학적 체계)과 함께 그 조건을 해석하는 문화주체의 의미세계(즉, 민속생태학적 체계)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화에 맞는 새로운 상담접근을 실제적으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주는 시사점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생애사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 '생애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생애사연구는 심층면접을 주 연구기법으로 하는 문화기술적 연구이다. 생애사는 개인에 관한 기록의 한 형태로서,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그 자신의 회고적인 이야기를 면담-기록자가 역사적 맥락 또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과는 달리,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현상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인간이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상황, 사건, 사물에 부여한 의미를 이해하

고자 하는데, 질적연구에 속하는 생애사연구 역시 맥을 같이한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인식한 자기경험의 의미에 대해 알려준다. 여기서 경험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인의 관점은 공유된 표준으로서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사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세계를 통해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생애사 연구방법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 문화를 대표할만한 개인의 삶을 그 개인의 관점으로 기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연구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게되며 자기 삶에 대해 현상학적인 관점을 취하게 된다. 이런 현상학적인 태도는 개인의 주관적 세계를 드러내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문화의 관계와 의식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데에도 유용하다(최영신, 1996).

생애사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드러낸 주관적인 세계, 관점은 연구자를 통해 해석되고, 연구자에 의해 해석된 텍스트(생애사)는 다시금 읽는 독자에 의해 해석된다. 생애사연구는 이렇게 해석의 중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용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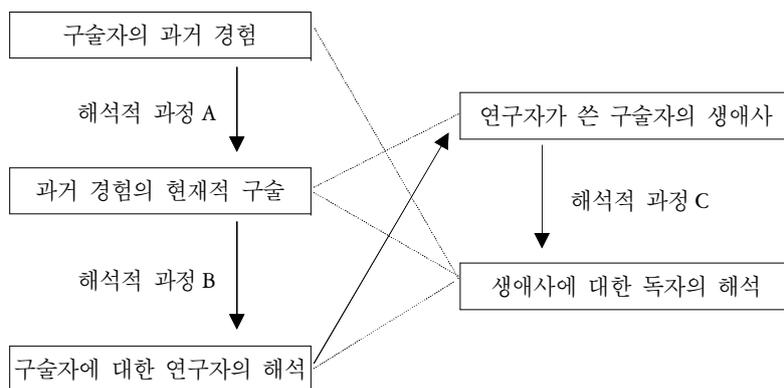


그림 1. 생애사 연구의 중층적 성격(조용환, 1999b, p. 130)

(1999b)은 생애사연구의 중층적 성격을 그림 1과 같이 도표화하고 있다.

연구자는 구술자의 현재적 구술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구술자와 그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독자는 연구자가 쓴 구술자의 생애사를 보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되며, 이 과정에서 다시금 구술자와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석은 우리 자신의 친밀한 맥락과 낯선 대상간의 간극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³⁾ 이해 이전의 환경들은 항상 해석을 필요로 한다. 생애사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는 생애사 해석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해석하는 자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듯 생애사 연구에서는 개인이 하는 행동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에 어떤 문화에 속한 개인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는데 적절하다.

생애사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한 사람과 집중적인 심층면접을 시행한다. 처음 몇 번 동안은 대화나 면접을 근거로 연구대상이 표현이 분명하고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류의 경험을 해 왔는가 등을 탐색, 판단한 후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김영지, 1994). 어떤 생활사 면접은 대상자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전 생애를 파악하고자 하는 한편,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 한 특정 기간이나,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특정한 주제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도 한다(Bogdon & Biklen, 1982).

이러한 연구방법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삶은 그

자체로는 개별적이지만, 생애사를 기술하는 연구자와 생애사를 접하는 독자의 해석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적인 기록이 아닌 공적인 기록으로 변화되며, 이런 해석을 거쳐서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문화는 개인에게 투영되어 역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개인의 삶에 대한 맥락적이고도 더욱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층면접

생애사연구는 주로 심층면접(ethnographic interview) 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심층면접은 양적 연구에서 질문지조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담 조사의 형식의 빌리는 구조적 면접과 구별된다. 문화기술적 심층면접은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구조화하지 않고 면접자-피면접자의 관계와 면접의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 형태의 비구조적면접이며, 이 면접에서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유도한다.

문화기술적 심층면접에서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제보자(informant)라고 하는데, 좋은 제보자의 선정은 심층면접의 성패를 좌우한다. 심층면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녹음기와 기록노트 외에 그림, 비디오테이프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심리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면접을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보자와의 심층면접을 주로 사용하면서 부가적으로 방과후학교 교사와의 면접, 일기와 글짓기 자료, 심리검사자료, 참여관찰일지

3) Gadamer의 관점에서 해석은 우리의 인식지평과 텍스트로서의 생애사에 들어있는 지평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게 볼 때, 생애사 해석은 우리의 인식지평과 텍스트로서의 생애사 사이의 차이가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질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양적 연구의 ‘확률적 표집(probabilistic sampling)’과 성격이 다른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을 통해 연구사례를 선정한다(Spradley, 1980). 준거적 선택에서 표집은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선택은 연구자가 현지인과 상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Goetz와 LeCompte(1984)가 제안한 질적연구의 연구대상 선정 기준에 맞춰, 일반화가 가능한 사례 수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 주제에 접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례를 찾으려 했다.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Goetz와 LeCompte가 나눈 준거적 사례선택 기준 중 이상적 사례선택 방법을 사용하고 Spradley(1980)가 제시한 좋은 제보자의 조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 1차적으로 연구대상자 4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연구주제에 적합한 대상자였으며, G연구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네 곳을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12월에 파일럿 인터뷰 형식의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대상자를 선정했다.

Spradley(1980)는 좋은 제보자의 조건으로, 그 지역 혹은 집단에 오랜 연고를 갖고 있어서 그 문화를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비학술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되 주관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들고 있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주제에 가장 적절한 연구대상을 찾는 과정이 연구의 신뢰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본 연구대상자인 정우는 결

식아동으로 선정되어 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이면서 부자(父子)가정 아동으로서 겪게되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있고 파일럿인터뷰와 참여관찰일지를 통해 볼 때, 1차적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자 4명중 제보자로서의 요건을 가장 잘 갖춘 편이어서 연구대상자로 적합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4세 남학생인 ‘김정우’이다.⁴⁾ 정우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이며, 봉제일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봉제일을 하던 정우의 친어머니는 정우가 6살 때 집을 나갔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몇 주 동안 집에 와 있다가 곧 다시 집을 나간 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부터 1년 동안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정우와 함께 생활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여름까지는 조선족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현재 헤어졌고, 중학교 1학년 3월부터 또 다른 새엄마와 함께 살고있다. 정우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요리, 청소 같은 가사일을 담당했고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해 학교 준비물을 준비해가지 못한 적이 많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준비물을 자주 못 가져가서 급우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부족한 용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학년 때부터 폐휴지를 모아 팔거나 전단지들을 돌리며 용돈을 모아왔으며,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먹을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기 시작해, 지금은 요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4) 연구 대상자 신상보호를 위해 본 연구에 나오는 인명, 지명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과정

연구자는 K방과후학교에서 상담을 시작한 2000년 3월부터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내담자였던 아동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와 연구자에게는 생소했던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학교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참여관찰을 시작했다. 연구자가 K방과후학교 생활에 대해 참여관찰을 한 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였는데, 초기에는 시야를 넓게 잡고 내담자인 아동들의 생활세계와 방과후학교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정우를 잠정적인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11월 이후부터는 정우를 중심으로 좀 더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참여관찰을 하였다.

당시 현지조사 노트에는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과 그에 대한 참여관찰자로서의 연구자의 반응을 적고, 방과후학교에 있는 다른 교사들과 나눈 대화에서 얻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 다른 아동들이 연구 대상자에 대해 연구자에게 말한 것들도 기록하였으며, Spradley(1980)가 제안한 문화기술학적 기록의 세 가지 원칙-언어를 분별하는 원칙, 말한 그대로 적는 원칙, 구체적 언어를 쓰는 원칙-을 고려하여 기록하였다. 참여관찰은 본 연구의 주 연구도구는 아니었지만, 연구주제와 제보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방과후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발견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상담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게 했으며 연구대상자를 상황적,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는 비슷한 이념으로 교육적 활동을 하고있는 G연구원에 속한 4곳의 방과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례를 찾는 과정을 거쳐 일차적으로 4

명의 학생들을 잠정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0년 11월~12월에 걸쳐 파일럿 인터뷰 형식으로 한 명당 2~3회의 심층면접을 했는데 이 기간은 아동들의 공통적인 경험과 행위·'남과 다름'에 대한 인식, 위기에 대한 나름의 대응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중 가장 적절한 연구대상자였던 정우와는 2001년 1월 말~5월 초 까지 주2~3회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녹음과 기록으로 남긴 자료는 내적 구조의 검토, 외적 맥락의 검토를 하면서 Wolcott(1994)의 기술-분석-해석의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연구목적에 맞게 텍스트화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반복적, 순환적, 누적적으로 수집,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를 해석,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행동간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지향적 상담의 관점을 취했다. 연구는 현상학적 판단정지로 저소득층 아동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연구자의 지평이 연구 대상자의 지평과 융합하면서 계속적인 해석을 이루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밟아나갔다.

결과 및 논의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단선적인 위기요소로 본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가 아동이 통제하기 힘들고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지만, 위기를 해석하는 주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이

위기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과 위기대응과정을 문화적인 행위양식으로 보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와 그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아동관점에서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해석과 분석과정은 문화지향적 상담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며, 현상학적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실재를 드러내주는 과정과 연구자의 해석적 입장을 통해 해석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쳤다.

본 연구에서 아동은 ‘자기가 경험하는 위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기표현을 할 수 있으며 위기에 대응하는 주도성을 가진 존재’이다. 연구의 내용을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삶에서 어떤 위기경험을 하며, 그것은 아동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삶에서 다른 아동들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위기를 경험한다. 이러한 위기경험은 주로 아동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기 힘든 상황인데, 아동은 남과 다른 자신의 경험을 ‘남과 달라서 고통스럽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으로서 정우가 경험한 위기경험은 표 1과 같다.

정우가 경험한 위기는 물리적 위기, 정서적 위기, 인지적 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물리적 위기는 외부에서 주어진 위기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바꿔보기 힘든 사실들이다. 두 번째로 정서적 위기는 어느 한쪽 부모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외로움이다. 정우는 큰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엄마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한다. 셋째, 인지적인 위기는 정우가 “나는 남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

는 부분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주된 생각 중 하나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생각은 아이들에게 위축감을 주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중류층 양부모가정 아동과는 다른 환경적, 상황적 조건을 갖고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갖게되는 ‘남과 달라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은 이들에게 깊이 자리잡고 있는 사고중 하나이다.

둘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은 자신이 지각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위기대응 전략을 사용하며, 왜 그것을 사용하는가?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정우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화적 양식이기도 하다. 남과 다르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 정우는 자신의 처지를 감추려 했고 무조건 참으려 했다. 그러나 여러 위기가 점점 자신을 억압해 왔을 때 정우는 위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우가 위기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동기는 고통이 심화되면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강한 바람과,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 지고 싶은 마음, 자기존재 확인에의 열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상실감, 타인과 ‘다른’ 삶의 조건에서 오는 박탈감과 고통, 먹고싶고 사고싶고 어울리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괴로움과 소외감 등 위기에서 오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무게였다. 가중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남과 똑같아 지고싶은 바람에서 정우는 위기대응을 하게된다. 위기대응을 위해 정우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1. 정우가 경험한 위기

| 위기사건,상황 | 시기 | 정우의 표현 | 정우의 인식 |
|--|---------------------------------------|--|---|
| 어머니 가출 | 6살 겨울 | 혼자 있거나 짜증날 땐 엄마가 아빠한테 돈 받아서 집 나가던 날 생각나요. | 약간의 원망→ ‘잊어버리자’ |
| 떠도는 생활, 자꾸 변하는 가족 | 7살(2달): 외갓집 11살(2~3달): 큰아버지네 | 안좋죠, 불안정하고 안좋아요. 자꾸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뀌니까...싫었어. 안좋아요. 계속 같이 사는 게 나아요. 죽을 때도 한 가족이면 좋겠어요. 계속 바뀌는 것보다 낫잖아요. | 불안정하다. |
| 홀로있음 | 7살~현재 |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구 아주 미쳐요! 혼자만 계속 있어보라구 해요. 할 일도 없죠, 돈도 없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지치고. | 외롭고 싫다. |
| 양부모 가정과는 “다른” 한 부모 가정 | 8살~10살 | 어른들이랑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너 엄마 없냐, 엄마 없냐” 짜증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땐 씩씩하죠., 많이 씩씩해요.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허락 받아와라’ 등등 학생들에게 하는 말에서) 모두 “엄마예요, 엄마!” 좀 “아빠”란 말도 하면 어디가 덧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 남과 다르다는 게 채피하다. ↓ 분노 ↓ 다르면 어머니! |
| 식사, 가사일 전담 등 혼자서 모든 일 하기 (초기) | 7살~현재. 9살 때부터 가사 일 전담 | 딴 애들은 다 저보고 엄마 없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잔소리 안해서. 지네들이 엄마 없어보라구해요. 처음에나 좋지, 그 다음엔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전 얼마나 아빠나 다 없잖아요? 그럼 용돈줄 사람도 없죠, 누구한테 밥 해달랄 수도 없고 자기 혼자 다 해먹고 일해야 하고... | 어쩔 수 없이 한다. 해야하니깐 그냥 하는거다. |
| 새엄마와의 갈등 | 11살~13살 | 밥하고 이런 거는 다 나한테 시키고 자기는 TV만 봐요. 엄마 없는 게 훨씬 나아요. 밤마다 자기들끼리 뭐 사먹고, 난 못 먹게 하고. 짜증나가지고 확 나가려다가... | 새엄마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
| 경제적 위기; 준비물준비 못함 용돈 못 받음 | 11살 ~13살 | 맨날맨날 학교가기 싫었어요. 특히 서예, 미술, 음악, 실과 같은 거 준비물 준비 많이해야 할 수 있을땐 더...! 용돈 못 받았을 땐 안 어울리고 애들이 놀자고 해도 아예 안 놀러갔어요. |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불행하다. 아빠를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 |
| 급우들로부터 마들림, 괴롭힘 | 11살 중반 ~13살 | 불행하다...오늘은 왜이리 불행하냐... 스트레스 검사 해보고 싶어요. | 불행하다. |

전략 1. 자신의 물리적 환경을 바꿔보려 노력하는 물질적 조작. 정우는 엄마기출 이후부터 외로움을 잊기 위해 자신을 TV 프로그램과 잠냄에 몰입시키고, 동물 등 정을 줄 대상을 계속 찾아왔다. 또 용돈을 벌기위해 빈병을 모아 팔고 세차와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애쓰고, 큰 마트 무료 시식코너와 무료게임코너를 발견해 돈 없이도 먹고싶은 것을 먹고 즐기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전략 2. 위기상황을 견디기 위해 비물질적인 것들을 자신의 인식수준에서 나름대로 조작하는 상징적 조작. 정우는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 1분을 1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등 자기만의 다른 시간관념을 형성해 힘든 현재를 빨리 보내려 애쓰고, 엄마에 대한 과거 기억을 잊으려 한다. 또 현재의 고통에 대해 ‘나중엔 그냥 다 잘 되겠지’ 하는 미래에 대해 막연한 희망을 가짐으로써 현재를 견디려 했다.

전략 3. 여러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억압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리와 통신동호회 활동같이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던 것. 삶의 현장에서 정우가 주체로 설 수 있는 장은 거의 없었다. 중상층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와 사회에서 정우는 늘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타자로 규정되었고,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아동이라는 조건과 연결된, 이중 삼중의 압박과 위기에 놓여있었다. 자신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장을 얻지 못한 생활이 누적되면서, 정우는 스스로 자기확인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는데, 정우에게 자기 확인의 장은 흑백 단말기를 통해 했던 통신동호회 활동과, 취미와 특기가 되어버린 요리하기,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모인 방과후학교 생활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기존사회에서 거부되고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의 삶의 장에서 자기확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아동은 위기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장을 찾아 나선다.

남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바램은 정우가 추구하는 가장 큰 것 이었다. 돈을 벌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정우는 말한다.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은 정우의 대부분의 활동을 이뤄내는 힘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정우가 보인 위기대응은 위기대응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화적 행위이다. 그런데, 아동은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위기라고 해서 그에 대해 언제나 똑같이 인식하고 반응하지는 않는다. 정우는 자신이 지각한 위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대응했다. 위기에 대한 정우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셋째, 본 연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주는 시사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우의 삶을 통해 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으로서의 삶은 또래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상담할 때, 그들만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 집단과는 차별화된 상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Sue(1990)를 비롯해 문화지향적 상담을 추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해서 상담자가 인식해야할 사항을 바탕으로 상담모형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혜경(1990)이 문화지향적 상담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문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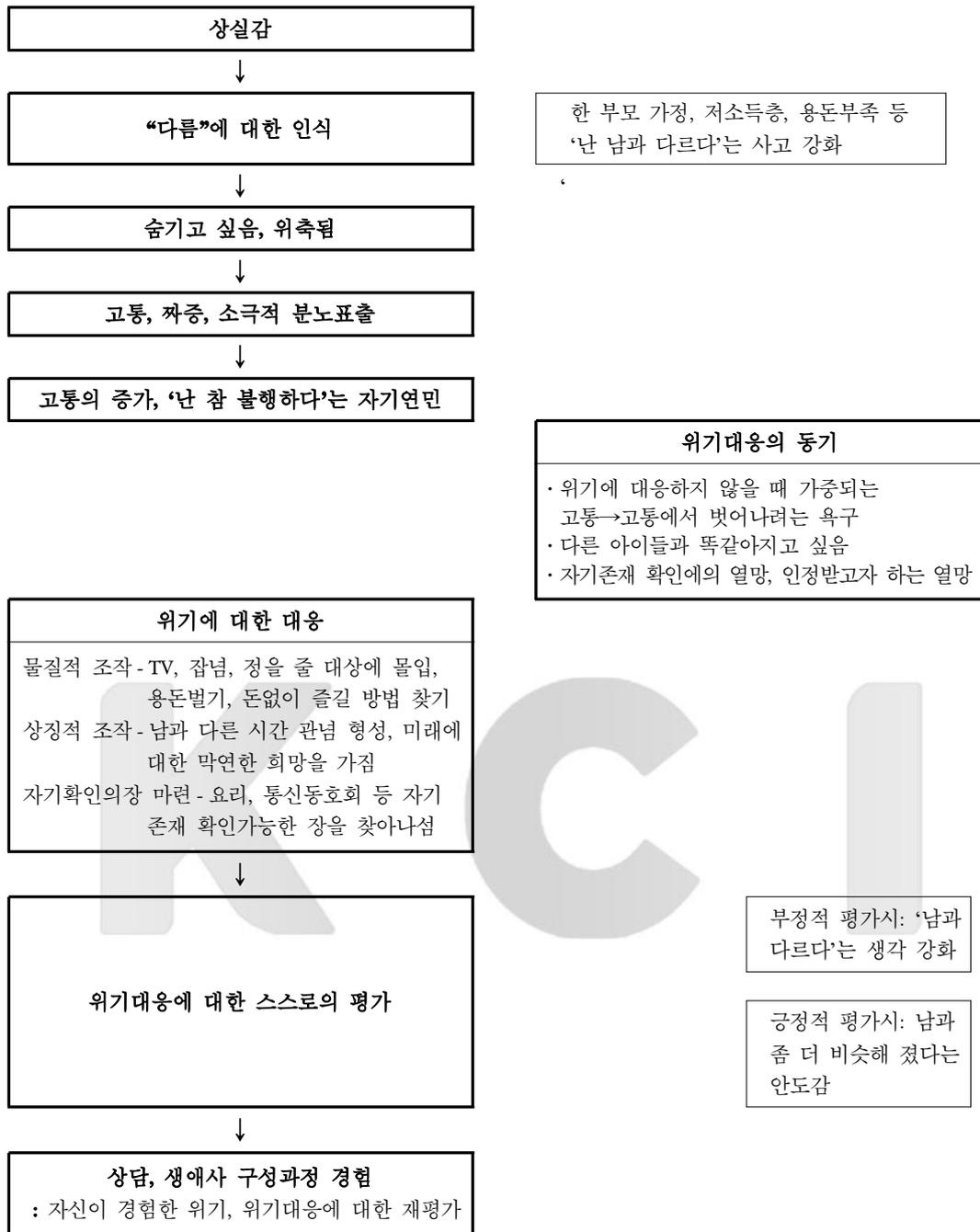


그림 2. 위기에 대한 인식변화

거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상담 이전 단계에서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그로 인해 형성되는 세계관, 가치관, 경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한 뒤 비교문화적 의식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상담 이전단계 준비가 끝난 후, 상담단계에서는 문화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상담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내담자에게 맞는 상담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상담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지향적 상담의 이론적 모형과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상담하는 문화지향적 상담의 전 단계(preentry level)에서 상담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선정해보면 표2와 같다.

표 2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 내담자에 대한 선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상담자가 상담 전

에 염두해 두어야 할 것들이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을 상담하려는 상담자는 우선 상담 이전 단계에서 문화지향적 관점을 습득하고,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선이해 측면을 염두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 내담자의 위기를 인식하고, ‘남과 달라서 고통스럽다’는 이들의 독특한 사고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위기에 대응하려는 동기와 이들의 위기대응 전략의 방식과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문화지향적 상담을 가능케 할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표 2의 내용은 유동적인 지식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실제 만남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표 2.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문화지향적 상담 전 단계(preentry level)

| 상담의 전 단계 요소 | 내 용 |
|------------------------------|---|
| 상담자의 문화지향적 관점 | - 상담자가 내담자와 서로 다른 문화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 - 상담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 |
|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선이해 (3가지 측면) | ① 위기에 대한 이해: - 물리적 위기, 정서적 위기, 인지적 위기 - 주된 사고: ‘남과 달라서 고통스럽다’ |
| | ② 위기대응 동기: - ‘남과 같아지려는’ 욕구 - 억압적 상황에서의 탈출 기대 - 자기확인에의 열망 |
| | ③ 위기대응 전략: - 물질적 조작: 물질적인 환경 변경 - 상징적 조작: 자신의 생각을 조정 - 자기 확인의 장 마련: 자기능력 발휘의 장을 찾음 |
|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 - 지지자, 문화적 차이를 줄인 상담자 |

아동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치료중심, 상담실 중심, 내담자의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상담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상담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토대로 아동의 삶과 문화에 적합한 것으로 모색해볼 수 있는 상담방법으로 아동의 삶의 현장으로 상담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미의 상담인 방과후학교 중심의 Outreach Counseling을 들 수 있다. 방과후학교는 다른 곳에선 소외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편하고 자유롭게 여기는 공간이고 학교와 달리 이곳에선 아동들을 선별하지 않고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손쉽게 만날 수 있으며, 이 아동들의 문화적 정서, 가치, 의미로 구성되는 공동체의 특성을 상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내담자의 편한 생활공간 안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적 차이를 줄인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방과후학교 중심 Outreach Counseling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예방차원에서의 상담과 개인의 세밀한 위기를 다루는 개인상담, 비슷한 환경적 조건을 지닌 동료들과의 효과적인 집단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해 시도해볼 만한 상담방법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체경험을 통해 아동이 소외되었던 상태에서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상담을 제안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들은 학업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지 않는 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만한 장이 거의 없고, 생활에서 주체보다는 수동적인 타자로 규정될 확률이 높다. 정우는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 학교에서 정우가 받는 메시지는 '엄마 없고 준비물도 잘 못 가져오고 공부도 못하는 너는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남들과 다른 아이'라는 것이었다. 정우는 더욱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

교함으로써 자신의 '불행함'을 인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하고자 하는 욕구로 표현된 것이 흑백단말기 컴퓨터를 통해 하게 된 통신동호회 활동과 집에서 하는 요리였다. 이 두 활동을 통해 정우는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었고, 생활의 활력을 얻었다. 학교와 달리 방과후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으니 활동적이 되었다. 자기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생애사를 구성하는 동안에도 정우는 신이었다. 그 시간에 정우는 일상생활에서 되어 보지 못한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리, 통신동호회활동, 방과후학교 생활, 생애사 구성의 과정 등 정우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재미있고 신났다고 손꼽는 것들은 정우가 주체가 되었던 경험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만큼 한 장에서 주체가 된다는 것,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억압과 소외가운데 있던 아동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다. 주체가 되는 경험과 상담을 통한 삶의 재구성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이 '남들과 다른 자신의 조건을 남들과 같은 조건으로 바꾸고자 애쓰던, 소외되었던 현실'을 깨트리고 '소외에서 해방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원 (199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권양자 (2000). 저소득 부자가정의 현황과 복지정책 방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연 (2001).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아동의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생애사연구: 문화지향적 상담의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지 (1994). 기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태 (1997). 21세기 청소년상담실천의 방향. 청소년상담연구, 5(1), 39-53.
- 김진숙 (2000). A Qualitative Study of Friendships and Student-Faculty Relationship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the U. S.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동계연수 자료집, 74-82.
- 김혜영 (1994).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인철 (1995). 저소득층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혁 (2001). 빈곤계층 청소년의 일과 발달에 관한 복지적 접근.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청소년과 일. 자료집, 47-64.
- 박신영 (1999). 저소득층 부자가족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란 (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원희 (1987). 결손가정 학생의 성격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정재 (1996).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말숙 (1989). 문제행동청소년 가족과 일반가족간의 가족역동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혜경 (1990). 문화지향적 상담모형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논총, 8, 63-88.
- 신혜경 (1991).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귀인양식과 상담효율성 평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선영 (1993).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 실태 및 탁아서비스에 대한 요구조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현미 (1999).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 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성경 (1999). 적응유연성 발달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청소년상담연구, 7, 26-39.
- 유혜령 (1997a). 아동연구의 다원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교육학논총, 17, 147-166.
- 유혜령 (1997b). 질적 아동연구를 위한 해석학의 방법론적 시사. 아동학회지, 18(2), 57-72.
- 유혜령 (1997c). 현대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아동 이해의 문제. 아동교육, 6(1), 96-110.
- 윤여각 (1998). 교육생애사 연구방법. 교육인류학 소식, 4(3), 8-11.
- 윤여각 (2000). 교육 연구에서 질적 접근의 논리와 방법. 교육학연구, 38(3), 133-158.
- 이경립 (1997). 빈곤지역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범 (1999). 방과후활동과 교육공동체. 공동육아 연구원 방과후프로그램 교사교육 자료집. 서울: 공동육아연구원.
- 이만영, 김수연 (1995). 생애사 해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4(1), 85-116.
- 이선경 (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승복 (1998). 소외지역 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문제와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 와 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희 (1975a). 미래지향적 카운셀링 소고.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15, 89-106.
- 이영희 (1975b). Culture, personality and counseling. *교육학연구*, 13(2), 181-198.
- 이영희 (1982). 문화와 상담: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한 시론.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23, 119-144.
- 이영희 (1997). 심리-사회적 갈등과 인간중심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1-17.
- 이은주 (1995).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숙 (1998). 빈곤아동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희 (1997). 청소년기 정신건강과 예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98-119.
- 정현희 (2000).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상담.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2000년 12월 학술발표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 조용환 (1995). 일상세계의 복잡성과 질적 연구의 논리. *교육인류학소식*, 1(1), 2-6.
- 조용환 (1998). 어느 '질적연구자'의 고충. *교육인류학소식*, 4(1), 1-2.
- 조용환 (1999a). 질적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 조용환 (1999b).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영신 (1996). 생애사(life history) 방법론에 있어서 주관적 세계의 성격과 교육학 연구에 주는 시사. *교육인류학 소식*, 2(3), 6-10.
- 최진희 (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 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1999). *통계청 통계 월보*. 1999년 4월호. 서울: 통계청.
- 한국노동연구원 (1999). *저소득 실직자 자활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도시연구소 (1995). *한국사회 변화와 빈곤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 허인영 (1999). 빈곤결손가정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ogdon, R. C., & Biklen, S. (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신옥순 역). 서울 : 교육과학사. (원전은 1982에 출판).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utler, I., & Shaw, I. (1996). *A case of neglect?: Children's experiences and the sociology of childhood*. Brookfield: Avebury.
- Crane, J. G., & Angrosino, M. V. (1996).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한경구, 김성례 역). 서울: 일조각. (원전은 1992에 출판).
- David, R. (1994). Clients' Defere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4), 427-437.
- Denzin, N. K., & Lincoln, Y. 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age.
- Dinkins, D. N., & Marcos, L. R. (1996).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children and family plan*. New York: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Mental Health, Mental Retardation and Alcoholism Service.
- Erikson, E. H. (1998). *아동기와 사회*(윤진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 (원전은 1963에 출판).

- Goetz, J., & Lecompte, M.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Havenaar, J. M. (1990). Psychotherapy: Healing by culture. *Psychotherapy & Psychosomatics*, 53, 8-13.
- Kenneth, C. F., & Mark, A. K. (1994). A Grounded Theory of Counselors' Construal of Success in the Initial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4), 492-499.
- Langner, T. S., Herson, J. H., Greene, E. L., Jameson, J. D., & Goff, J. A. (1970). Children of the city :affluence, poverty, and mental health. In V. L. Allen(Eds.), *Psychological factors in poverty* (pp.185-209).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mpany.
- Lee, Y. H. (1975). *Culture-oriented and future-oriented counselor educat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he Michigan, Ann-Arbor Michigan.
- Lee, Y. H. (1981). Innov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in korea. *East West Education*, 2(2), 27-46.
- Lewis, O. (1978). 산체스네 아이들 (박현수 역). 서울: 청년사. (원전은 1961에 출판).
- Lewis, O. (1979). 가난이 낳은 모든 것 (한성간 역). 서울: 흥성사. (원전은 1959에 출판).
- Mayeroff, M. (1971). *On caring*. New York: Harper & Row.
- Mason, J.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Sage.
- Medforth, N., Fenwick, G., & Wyse, D. (2000). Images of childhood. In Wyse, D., & Hawtin, A (Eds.), *Children a multi-professional perspective* (pp.1-30). London: Arnold.
- Pederson, P. B. (1996). *Culture Centered Counseling: Striving for Accurac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Ramey, C. T., & Ramey, S. L. (1990). Intensive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poverty. *Child Development*, 14(1), 1-9.
- Seifer, R., Sameroff, A. J., Baldwin, C., & Baldwin, A. (1992). Child and family and factors that ameliorate risk between 4 and 13 years of ag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893-903.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ue, D. W., & Sue, D. (1990).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 theory and practice*(2rd Ed).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Sue, D. W., Ivey, A. E., & Pederson, P. B. (1996). *A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Therapy*. CA: Brooks/ Cole.
- Suransky, V. P. (2000). 아동기의 실종 (이재연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1982에 출판).
- Thompson, C. L., & Pudolph, L. B. (1988). *Counseling Children*. CA: Brooks/Cole.
- Walz, G. R., & Benjamin, L. (1978). *Transcultural counseling: Need, programs and techniques*.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 Wenar, C. (199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3rd Ed). New York: McGraw-Hill.
- Wolcott, H.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원 고 접 수 일 : 2003.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17
게 재 결 정 일 : 2003. 9. 5

A Culture-Oriented Counseling About the Crisis of the Child in Low-Income Bracket and a Family of Single Parent

Seung-Yeon Kim

Sogang University

Young-Hee Lee

Sookmyung Woman's University

This is a basic study for the culture-oriented counseling and life history study to understand that the child of the low-income bracket and a family of single parent copes with cris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an application of counseling for the child by focusing on the strategies that a child of the low-income bracket and a family of single parent copes with crises and finding out the crises he experiences, the meaning of the crises and process that he copes with crises. These are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1) What crises does a child of the low-income bracket and a family of single parent has and what does it mean to him? (2) What strategies does a child of the low-income bracket and family of single parent has and why does he do those things? (3) What suggestion does this study give to the counseling for the child of the low-income bracket and a family of single parent? On the mentioned result of the study above, a counselor has to know the physical, emotional, and cognitive crises, the motive of coping with the crises and the strategies of coping with the crises of the child of the low-income bracket and a family of single parent at pre-entrylevel in order to prepare the culture-oriented counseling. His effort to cope with the crises is 'being like others', so we need to help him be from 'estrangement' to 'liberation', not from 'difference' to 'same'.

Key Words : low-income bracket, family of single parent, crisis, the strategy to cope with the crisis, life history study, culture-oriented counseling